

인삼 대량 배양시스템 개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원장 이윤환) 신사업연구부 양덕춘박사팀이 인삼뿌리조직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양박사팀이 이번에 개발한 대량배양 시스템은 지난 1995년부터 1억5천만원을 들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의 대량 생산' 과제 수행결과로 그동안 식물세포의 배양에 쓰이던 대형 탱크를 탈피, 20L짜리 생수통을 배양기로 이용해 생산비용을 1/10로 낮췄다.



200가닥 방사시연 장면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한·일 공동 국제심포지엄 예정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생물공학회(회장 양지원)는 오는 4월 13일 건국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발표대회 및 한·일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과총·일본생물공학회가 후원한 가운데 열릴 금번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은 초청특강, 2백여편의 논문발표, 포스터 발표 및 특강, 분과별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생물공학회와 일본생물공학회는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2번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봄에는 한국에서 일본생물공학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며, 가을에는 한국생물공학회에서 일본생물공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특강 발표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생물공학회와 함께 한·일·중 공동 국제심포지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고기능 다용도 유리섬유 중에서 현재 바로 주문 생산이 가능한 유리섬유는 내약품성이 우수해서 화학용기 라이너 등에 사용되는 C-유리섬유와 토목건축 구조물 및 보수용으로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A-유리섬유이다. 한편 이번 고기능 다용도 주문형 유리섬유 개발 성공으로 2003년부터 연간 약 1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C-유리섬유, A-유리섬유의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 동남아, 동유럽 등 해외 시장의 수출도 연간 5백만달러 이상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기능 다용도 주문형 유리섬유 국내 최초 개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원장 김충섭) 화학소재연구부 이재락박사팀은 1992년부터 8년간 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20억원의 지원을 받아 화학제품 반응용기, 건축자재 등의 특수용도로 사용되며,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고기능성 유리섬유의 다용도 주문생산 제조기술 개발에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 백영준박사 선정 한국과학재단

'직류전원 플라즈마를 응용한 다이아몬드웨이퍼 합성 기술'을 개발한 백영준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2001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첫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이아몬드재료는 현존하는 어떤 소재보다도 월등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전자 및 반도체, 기계, 광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질 차세대 소재이다. 백박사 연구팀은 다이아몬드 기상합성분야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들을 확보하여 국내의 다이아몬드 기상합성기술의 기틀을 확보했다. (ST)